

시민 10명 중 7명 “노력해도 사회적지위 안 높아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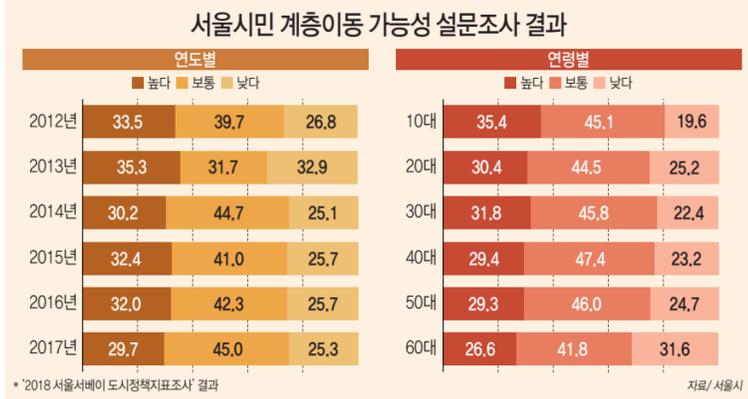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계층이동 가능성 3년 간 하향세
행복도 6.96점... 소득 높을수록 ↑
월세비중 높아지고 30대가 '1위'
부부가구 가사노동 58% '아내 몫'
젊은층 가사분담·다문화인식 높아

서울시민 중 29.7%만이 '스스로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3년 동안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남녀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주택 점유형태는 10년 전에 비해 자가 비율이 줄고, 월세 비중은 증가했다. 반려동물은 서울 5가구 중 1가구가 키우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 전체 10명 중 8명은 '서울이 고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



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9월 한달 간 서울시내 2만가구(15세 이상 4만2687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거주 외국인 관련 조사결과는 추후 발표된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29.7%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6년엔 32.0%, 2015년엔 32.4%였던 것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같은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비율이 10대가 35.4%, 20대 30.4%, 30대 31.8%, 40대 29.4% 등 30%내외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46.6%에서 44.1%로 떨어진 형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세대별로도 모두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는 비율이 많지 않고, 저소득층일 경우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대균 서울시정보기획관은 "시 차원에서 그동안 창업 지원 등 계층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교육이라던지 다른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더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남녀가사분담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세대 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녀가사분담과 관련해, 전체 서울시민 가운데 부부가구의 가사노동 주 책임은 여전히 아내 몫이라는 생각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0대 23.1%, 50대 28.9%, 60대 35.6%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대에서는 15.0%에 불과해 연령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여성 2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집안청소를 하며, 여성 3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역할은 경제활동, 아내의 역할은 가정 돌봄'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 5.15점, 여성 4.98점으로 동의를 해,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구의 15.3%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31.9%는 X세대(1964년~1980년생), 28.7%는 밀레니엄세대(1981년~1997년생)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이 높게 나타났다.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세대와 고령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번 서베이 조사결과, 10가구 중 4가구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월세가 31.2%, 전세는 26.2% 순이었다. 다만 지난 10여년간 주택자기비율은

2.5%포인트 줄고, 월세 비율은 10.6% 포인트 높아졌다. 30대 가구는 월세비율이 43.5%로 40~60대가 20%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년 후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62.9%가 아파트, 22.8%가 단독주택을 희망했다.

서울시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지난해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지난해 6.97점보다 소폭 낮아졌다.

행복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 중 42.7%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족 현상이 뚜렷했다. 젊은 세대 가운데 서울 출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이 고향'이라는 인식이 10명 중 8명 꼴로 나타났다. 또 현재 서울시민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2016년 정부 통계의 센서스 기준 1~2인가구는 서울에서 54.7%, 1인가구 비율은 30.1%로 발표된 바 있다. 1인가구비율이 높은 자치구로는 관악구(45.1%), 중구(38.2%) 등이 있다. 2인가구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500만원이 21.1%로 가장 높았고, 300만~400만원이 20.2%, 500만~600만원이 16.6% 순이었다. 2인가구 이상 중 200만원 미만 소득은 10%였지만, 1인가구는 전체 45%를 차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지하철서 깜빡 졸아도 도착역 안 놓쳐요”

서울시 '도착역 알림서비스' 도입 하차 전 푸시알람·진동으로 알림

서울시가 앱에서 지하철 도착역을 설정해두면 도착 직전 푸시알람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해 이달부터 지하철 2, 3, 4호선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엔 1~8호선 모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착역 알림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공사가 운영하는 '또타지하철' 앱에서 목적지를 클릭한 후 오른쪽 상단 중 모양을 누르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타트업 사운들리의



기술력을 공사가 발굴해 지원, 상생 기술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공사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 사운들리가 보유한 음파통신 기술로 알림서비스를 구현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로 열차 도착 방송 내용을 앱에 보내고 스마트폰이 이를 수신해 알람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원리다.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 알람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에 도착역 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도착역 지정·알림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역을 늘리게 됐다"며 "지하철에서 졸아내릴 곳을 번번이 놓치는 승객부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느라 어디를 지나는지 깜박하는 시민, 청각장애인까지 지하철 내 방송을 미처 듣지 못해도 도착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비 개인 하늘 '날씨 좋다'

장맛비가 그친 3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맑다.

/연철뉴스

SH공사, 임대관리직원 384명 정규직 전환

노사 갈등 최소화 합의
조직화합 위한 발판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임대주택관리직원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SH공사노동조합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해 오던 384명의 임대주택관리 직원에 대해 상호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원내 별도직군인 '주거복지직'으로 편입하기로 지난달 29일 노사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주거복지직' 편입 과정에서 직군간 전환 조건이나 직급 명칭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기존 일반직에 대한 근로조



건 침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노사간에 상호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노사합의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SH공사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교섭대표노조인 SH공사통합노동조합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지난해 8월 30일)'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관리직의 정규직

통합 조건을 둘러싸고 6개월 이상 팽팽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 21일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을 신설해 이곳으로의 편입을 합의한 바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두 차례의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화합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찾음으로써 차후 공사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장래 공사는 상생과 협치의 노사관계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제3기 주거복지·도시재생 정책을 활기차게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지역특성 반영 청년일자리 266개 창출

서울시-8개 자치구

서울시와 자치구 8곳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266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 내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예정 기간은 7월 중순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을 채용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인원 1인당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역에 취업할 경우 연 10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제공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민간 기업이 청년을 채용, 업무 경험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1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채용기업에 청년 한 명당 연 최대 225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hiki@